온라인 과외를 하는 방법 (1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비대면 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들이 생겨났습니다.
온라인 회의 플랫폼인 zoom은 이 기회를 놓지지 않고 무료 라이센스 제공으로 시장을 장악하였고 이는 2020년 330%의 주가 상승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론으로 실제하던 메타버스는 코로나 시국과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게더 타운과 같은 서비스로 구현이 시도되고 있죠.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들은 위험성으로 인해 섣불리 시도하지 못했던 비대면 플랫폼의 접목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이로 인해 코로나 시국이 거의 끝난 지금도 여러 대학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과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강사마다 다른 온라인 플랫폼 숙련도와 학부모, 학생들의 불신으로 등으로 인해 다른 영역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보수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일을 시작한 2020년 상반기부터 오프라인 수업으로 경력과 경험을 쌓은 뒤 하반기부터 온라인 수업을 도입하여 지금까지 수백번의 수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제 생각을 오프라인 수업과 비교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 장점

[] 서로의 금전적 / 시간적 절약

아주 큽니다. 온라인 과외에 적응이 잘 된다면 사실 대면을 굳이 해야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잘만 활용한다면 오프라인에 비해 훨씬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음 문제만 없다면 장소에 큰 제약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시간 조율에도 자율성이 생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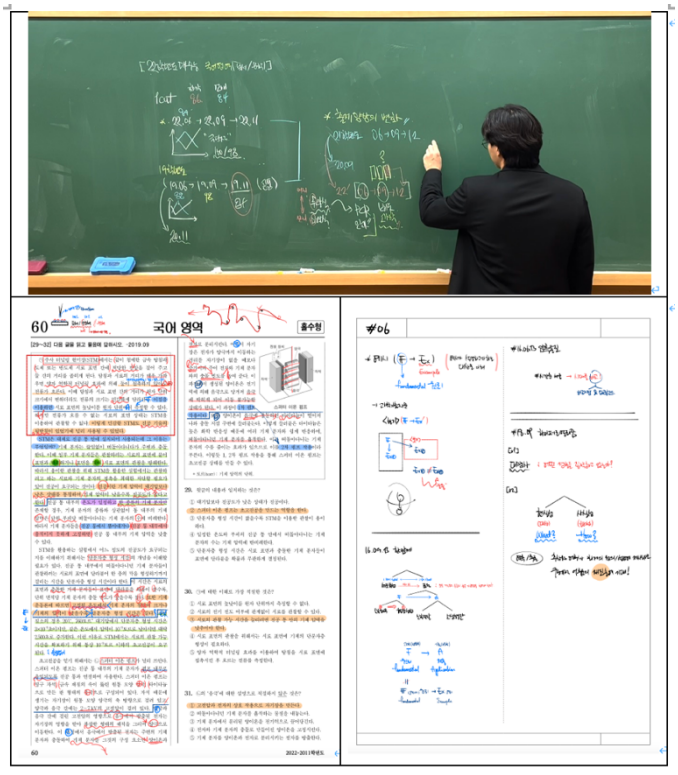
강사 입장에선 교통비와 교통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급을 낮춰서 부른다고 해도 여러모로 이득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도 교통비, 교통시간, 장소 대여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시급에 추가로 지불할 제반비용은 사라져 이득을 보죠.

[] 높은 퀄리티의 학습 자료 제공

이건 제 수업에만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글씨체가 나쁘지 않고 필기를 잘하는 편이신 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도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

필기 능력이 좋으신 분

매 수업 아이패드를 줌에 연결하시고 필기를 보여주세요.
칠판보다 더 정리되고 가독성 좋은 판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만, 수업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왼쪽은 제 현강 판서와 온라인 과외 판서를 비교한 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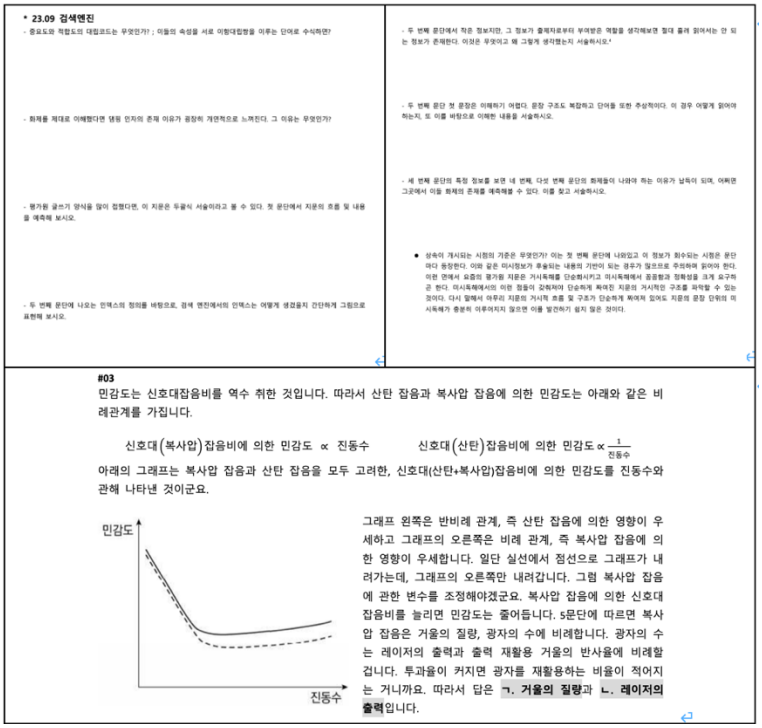
차이점이 보이시죠?
좌측은 지문 위에 직접 필기하며 실전에서의 표시법과 더불어 중요한 문장 표시 및 해설 필기를 기록한 파일이고
우측은 지문 위에만 필기하기엔 칸이 부족하여 도입한 수업 필기 노트 양식입니다. 구조도, 내용 정리 등을 해볼 수 있죠.
이 둘을 병행하며 동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런 방식을 도입하면 현강 수업 때 칠판 위에 빔프로젝터를 쓴다 하더라도
온라인보다 좋은 가독성을 보여준다고는 보기 힘들 겁니다.

이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은 매번 수업 판서 자료를 수업 직후 pdf 복습자료로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이 원한다면 수업 영상을 녹화하여 드라이브로 공유해줄 수도 있기에 **인강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필기 능력이 좋지 않으신 분

글씨체가 가독성이 떨어져 힘들다면, 위와 같은 파일로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끔 애플펜슬을 두고오거나 잃어버리면 강사 입장에선 난감하죠.
이럴 때 하는 방법은 학생과 같이 실시간으로 해설지를 쓰는 것입니다.
타자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고 요령이 좀 생긴다면 거의 말하는 것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해설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미리 해설 파일 양식과 기본 내용을 준비해 오셔야 효율적으로 수업을 구성할 수 있겠죠?



첫 줄은 사전에 제시하는 문제지
둘째 줄은 **[수업을 하며 동시에 작성 + 수업 뒤 추가 보완]**하여 복습자료로 제공한 해설지입니다.

이것들만 봐도 서로에게 여러모로 큰 장점입니다.

[] 전국 단위의 학생 모집

지역의 제한이 없기에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풀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가르친 학생들의 지역을 나열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전지역
강원도
수원
대전
광주
이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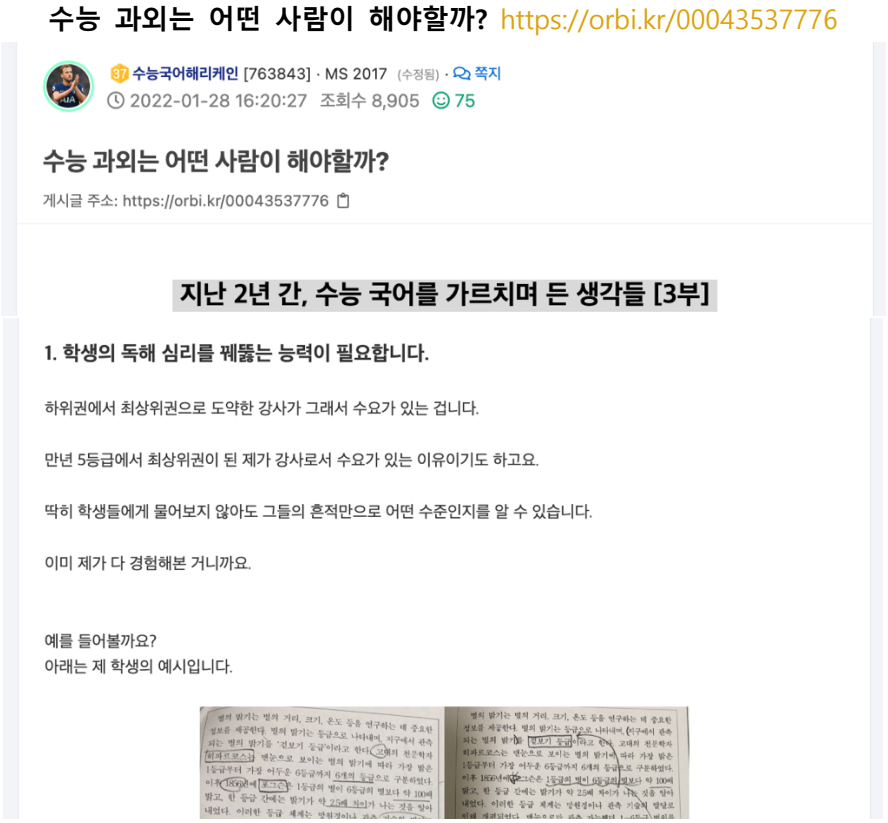
아예 전국구이죠? 실제 수업이 아닌 문의 들어온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더 많을 겁니다.
따라서 홍보만 제대로 된다면 더 효율적으로 문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 단점

[] 커뮤니케이션의 한계

당연히, 대면으로 볼 수 없기에 커뮤니케이션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카메라 각도를 조절한다 한들 푸는 모습을 대면과 같이 세세하게 확인하기는 살짝 힘든 감이 있죠.
여기선 강사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학생이 푼 흔적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면 그 사진 속에서 학생이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칼럼에 이를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수능 과외는 어떤 사람이 해야할까? https://orbi.kr/00043537776



수능국어해리케인 [763843] · MS 2017 (수정됨) · 쪽지
2022-01-28 16:20:27 조회수 8,905 75

수능 과외는 어떤 사람이 해야할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3537776

지난 2년 간, 수능 국어를 가르치며 든 생각들 [3부]

1. 학생의 독해 심리를 꿰뚫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도약한 강사가 그래서 수요가 있는 겁니다.

만년 5등급에서 최상위권이 된 제가 강사로서 수요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딱히 학생들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그들의 흔적만으로 어떤 수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다 경험해본 거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래는 제 학생의 예시입니다.

저는 학생이 지문을 풀 때마다, 숙제를 해올 때마다 카톡으로 이를 사진찍어서 보내게 하고 면밀히 분석합니다. 실모나 자체 테스트를 볼 땐 컨닝을 하지 못 하도록 카메라 각도를 아예 책상면을 향하게 조정하도록 시킵니다. 서울에 사는 학생이라면 가끔 서울에 올라갈 때마다 대면수업을 진행하며 미처 발견하지 못 한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하죠.

[] 비싼 장비의 필요성

아래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품들입니다.

노트북 : zoom과 pdf, chrome, memo, 화면녹화 등을 동시에 실행시키려면 생각보다 사양이 좋아야 합니다. 현재 저는 m1 MacBook pro 13' 을 이용하고 있고 이 정도 성능이면 충분한 듯 합니다.

태블릿과 스타일러스 펜 : 웬만하면 아이패드, 애플펜슬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위의 장비들을 **모두 apple의 제품으로** 쓰시면 훨씬 좋습니다. 에어드롭을 통해 컴퓨터로 작업한 파일을 쉽게 보낼 수 있고 컴퓨터에서 복사한 이미지, 텍스트 등을 쉽게 아이패드로 옮기는 등 연동성이 매우 좋습니다. 조금의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애플의 생태계를 이용하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아래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있으면 좋은 제품입니다.

외장모니터 : 노트북과 연결하여 수업하면 효율이 좋습니다. 꼭 있지는 않아도 됩니다.
무선이어폰 : 설명 생략

위의 제품들은 대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웬만하면 갖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죠.
저도 처음엔 대면과외만 하다가 돈을 모으고 어쩌다보니 모두 구비한 제품들입니다.
강사에겐 조금 진입장벽이 있네요.

학생들은 웹캠이 달린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별 문제 없습니다.

[] 그룹화의 불가능

대면과외는 인원이 모이면 그룹과외로 전환한 적이 있으나
비대면과외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과외의 단점 중 하나는 학생의 집중력 저하인데,
이는 1:1일 땐 계속된 질문과 맞춤형 수업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룹과외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비대면 그룹과외를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아는데, 만일 제대로 유지 중이시라면 존경합니다.
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과외의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
보시면 단점들은 사실 다 극복 가능한 것들입니다.
온라인 과외와 오프라인 과외를 비교한다면 전 아래와 같이 한 줄로 요약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과외와 오프라인 과외는 장점이 다른 것 뿐,
어느 게 더 우위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

온라인 과외를 하는 방법 (2부)

이전에는 온라인 과외와 대면과외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왜 온라인 과외가 효율적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선 어떤 준비물과 환경을 갖춰야하는지 그 이유와 함께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PLATFORMS

대표적으로 Google Meet, Discord, Zoom 같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끝나가면서 플랫폼의 점유율을 위해 무료 서비스 제공을 하던 회사들은 몇 가지 조건들을 유료화 하였습니다.

어느 플랫폼이든 유료 결제를 하는 순간부터 수업을 하는 데 충분한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저같은 경우 관성적으로 zoom을 이용하곤 합니다만, 이용료가 17000원 가량으로 조금 비싼 편입니다. 비대면과외라는 게 복잡한 기능을 요하는 게 아니기에 google meet으로 갈아탈까 합니다.

[[]] 오디오와 카메라, 그리고 수업 장소

[] 강사

강사는 수업을 이끄는 주체로서 오디오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외장 마이크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트북이나 핸드폰, 태블릿의 마이크 정도 성능이면 충분합니다. 에어팟도 좋고 헤드폰도 좋습니다. 다만 줄이어폰의 경우 마이크가 이어폰 줄에 매달려있어 강사가 움직일 때마다 마이크와 입 간의 거리가 달라지므로 오디오 음질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카메라도 성능이 좋을 이유는 없습니다. 컴퓨터 내의 웹캠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강사로서 좋은 화질에 신경을 조금 쓰는 것은 나쁠 게 없으니 본인이 소유한 노트북의 카메라가 화질이 좋지 않을 경우엔 따로 웹캠을 사셔 부착하시면 좋겠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을 제하고는 웬만하면 카페를 피하세요. 그렇다고 소음이 아예 안 들리는 곳을 집착할 이유는 없습니다. 적당히 본인의 자취방, 기숙사 방, 스터디룸 정도면 됩니다. 약간의 소음은 zoom에서 자체 노이즈캔슬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하고 소통 방식이 좀 정립되고 유대가 생겼을 경우엔 상황에 따라 카페 등에서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수업하는 장소의 와이파이는 쾌적해야 할 것입니다.

[] 학생

수업에 참여하는 입장이므로 너무 조용한 공간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에서 하셔도 좋고 집에서 하셔도 좋고.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강사가 정확히 들을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학생은 수강하는 장소의 와이파이 속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최근 진행한 온라인 과외에서 학생의 웹캠이 고장난 적이 있습니다. 색깔이 계속 바뀌고 지직거리는데 형체는 알아보는 데 무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학생은 웹캠의 품질에 신경 쓸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다만 꼭 카메라를 켜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대면과외보다는 소통에 제약이 있어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쓰는 게 좋습니다. 강사 입장에서 학생의 얼굴을 보지 않고 수업하면 매우 수업 질이 저하됩니다. 물론 이 또한, 유대관계가 쌓이고 소통 방식이 정립된 후엔 사정에 따라 가끔은 웹캠을 끄고 수업을 수강해도 괜찮긴 합니다.

[[]] 강사는 무엇이 어떻게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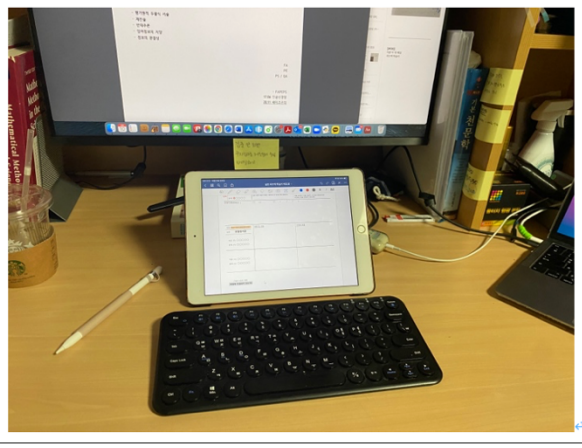
사전에 준비해야할 게 조금 있습니다.
직전 칼럼에도 적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덧붙이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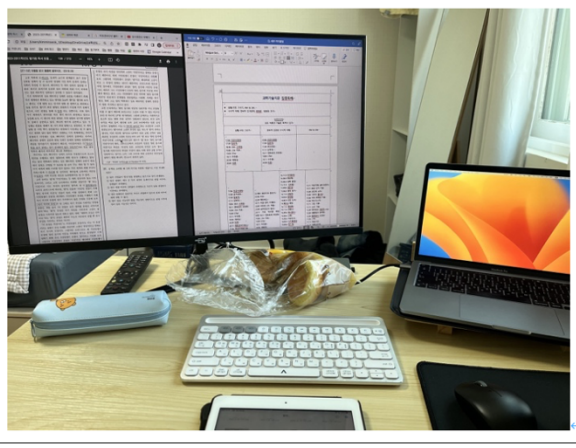
- 아이패드&애플펜슬 with Goodnote 어플
- 모니터
- 노트북
- Hdmi 선
- 무선 키보드와 마우스

노트북에 외장모니터를 연결하지 않아도 수업이 가능하지만, 외장모니터로 연결하여 화면을 크게 보는 게 수업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수업할 땐 zoom 화면 외에도 강사 입장에서 그때 그때 참고할 자료를 열어놓고 설명하면 좋습니다.

태블릿은 삼성 것도 좋지만, 확실히 아이패드가 더 낫긴 합니다. 일단 뭐가 됐든 줌과 굿노트 앱을 동시에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성능만 가지면 됩니다.

장비의 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니터를 쓴다는 가정 하에, 노트북은 옆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타이핑과 트랙패드 이용이 불편하죠. 따라서 이 경우 무선 마우스와 키보드를 구입하는 걸 추천하는데, 둘이 세트로 당근에 매물이 자주 나오니 굳이 새 거 사기보단 당근에서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트북이 옆에 배치되므로 zoom에서 학생은 강사의 측면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게 소통에 문제를 만든 적은 없습니다.

[[]] 학생은 어떤 준비물들을 갖춰야 하는가?

- 컴퓨터 혹은 태블릿 (카톡이 되면 좋음) / 이하 컴퓨터로 퉁침
- 웹캠
- 프린터기
- 카톡과 카메라가 되는 핸드폰

    - ‘아이패드&애플펜슬’ 은 의외로 학생이 굳이 없어도 됩니다.

컴퓨터는 zoom과 pdf, 그리고 간단한 인터넷 검색 정도만 되면 좋습니다. 컴퓨터에 카톡이 깔려 있으면 가끔 zoom 링크를 수정해서 보내드릴 때 바로 접속하실 수 있어서 편합니다. 웹캠은 컴퓨터에 내장 되어 있으면 따로 구비 않으셔도 됩니다.

프린터기가 중요한데, 수업을 들으시는 장소에 있는 경우 바로바로 출력이 되면 좋습니다. 즉각적으로 보충 자료를 주어 풀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는 없지만 근처 문방구나 학원에서 사전에 자료를 받아 인쇄 후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사실 큰 문제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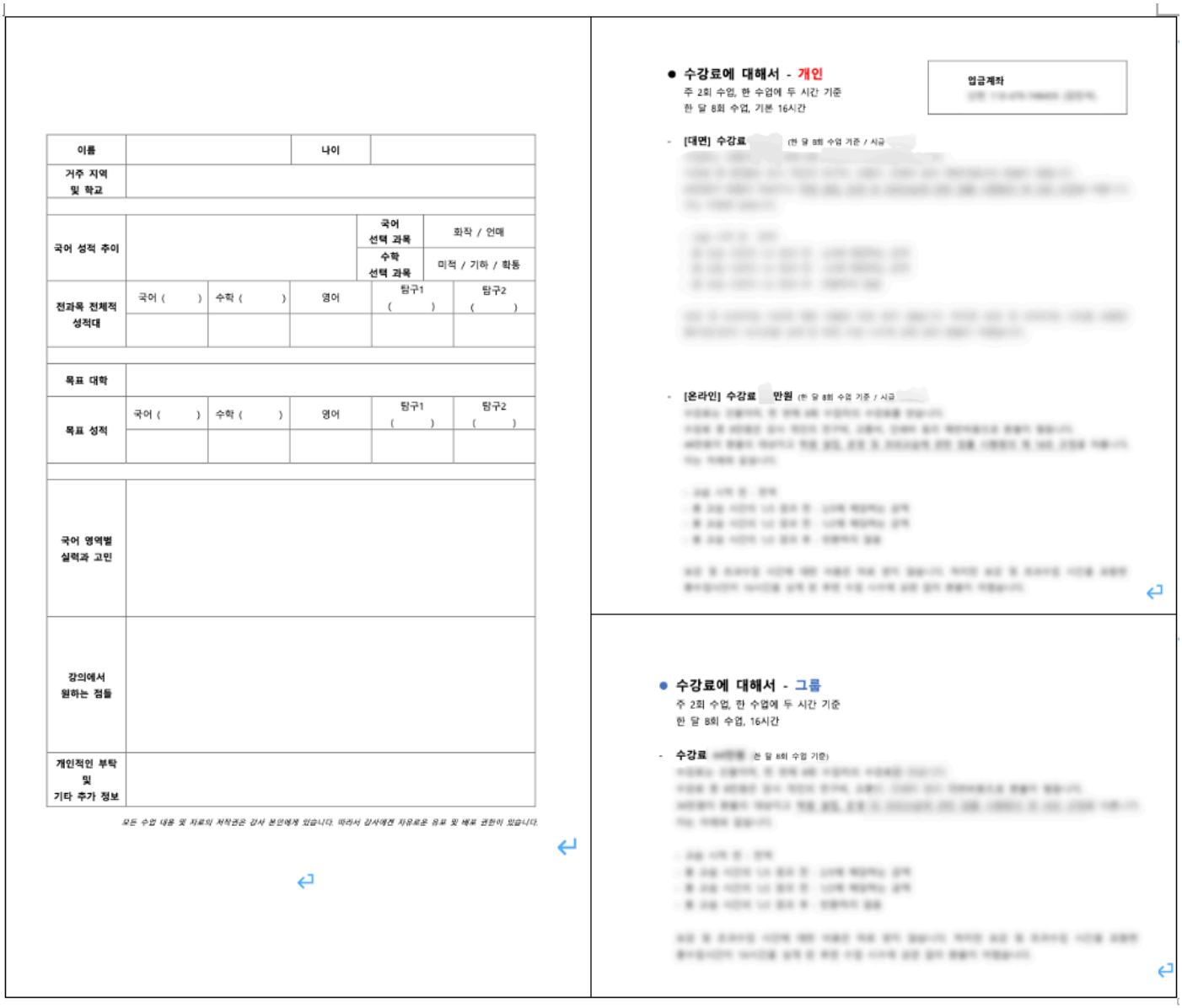
수업 도중 그림이나 구조도를 그리게 시켰을 때나, 숙제 및 학습지의 학습 흔적을 봐야할 경우 학생은 카메라로 본인의 공부 자료를 찍어서 강사에게 카톡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는 수업 때 즉각적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준비돼야 합니다. 그냥 카톡 잘 되는 평범한 스마트폰 있으면 된다는 말이긴 합니다.

아이패드와 애플펜슬, 혹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태블릿과 펜은 굳이 학생한테 없어도 됩니다. 있어도 잘 안 쓰게 됩니다. 수험생들은 보통 태블릿보단 종이에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고 수능을 종이로 푸니 이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또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학생 태블릿을 줌으로 화면공유하여 실시간 풀이 과정을 지켜보는 게 그렇게 수업 질에 도움이 된 적은 없고 오히려 번거롭습니다. 강사라면 다 풀고 난 뒤 지문 위 표시 흔적만으로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하긴 하고요.

[[]] 미리 준비하면 좋을 수업 자료들

[] 시강 및 상담 자료

본인이 직접 상담지와 수업 규정, 수강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학부모와 학생의 신뢰가 올라갑니다. 저는 아래과 같은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		나이		
거주 지역 및 학교				
국어 성적 추이			국어 선택 과목	화작 / 언매
			수학 선택 과목	미적 / 기하 / 확통
전과목 전체적 성적대	국어 ( )	수학 ( )	영어	탐구1 ( ) / 탐구2 ( )
목표 대학				
목표 성적	국어 ( )	수학 ( )	영어	탐구1 ( ) / 탐구2 ( )
국어 영역별 실력과 고민				
강의에서 원하는 점들				
개인적인 부탁 및 기타 추가 정보				

모든 수업 내용 및 자료의 저작권은 강사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에겐 자유로운 유료 및 배포 권한이 있습니다.

● **수강료에 대해서 - 개인**
주 2회 수업, 한 수업에 두 시간 기준
한 달 8회 수업, 기본 16시간

입금계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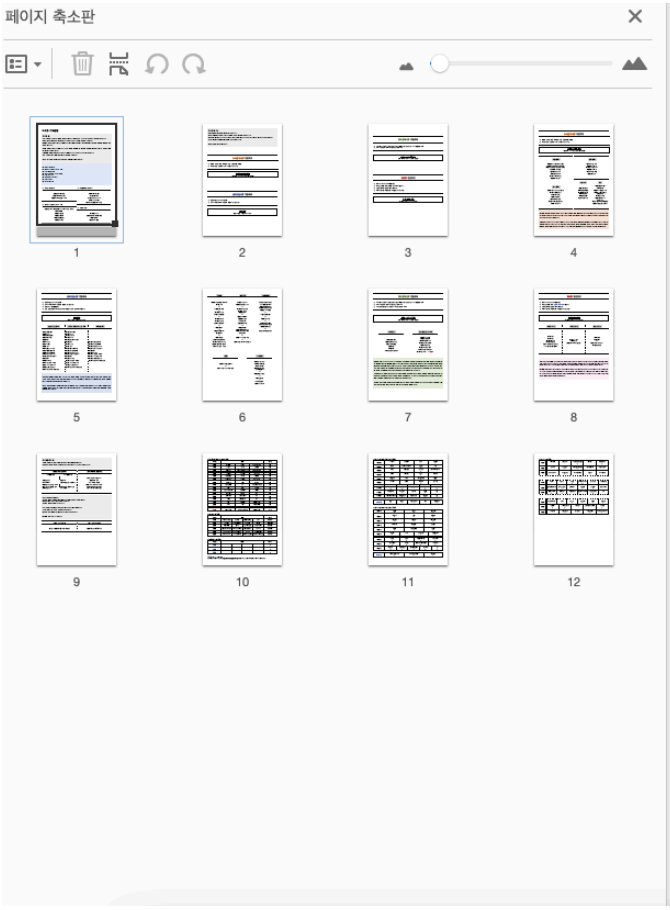
- **[대면] 수강료**

- **[온라인] 수강료 만원**

● **수강료에 대해서 - 그룹**
주 2회 수업, 한 수업에 두 시간 기준
한 달 8회 수업, 16시간

- **수강료**

세부 커리큘럼 또한 가시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와 같이 파일로 준비해 놓으면 강사 입장에서도 수업을 준비하는 게 편해집니다.



● 세부 커리큘럼

첫 한 달

가장 기본기를 가르칩니다. 학생의 수준과 적성을 알기 위해 강사가 미리 준비한 기출들에서 선별하여 수업합니다.
어쩌면 조금 산발적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강사 자체의 철학에서 기인합니다.
독해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음에도 처음부터 이를 원론적으로 설명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못 합니다.

학생의 수준에 맞게 여러 지문들을 주고 당장 부족한, 개선해야 할 태도들을 설명하며 원론적인 이해보단, 실전적인 적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70%정도의 내용을 접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체계적이고 원론적인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간 가르쳤던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그 연계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꼭 배워야 하는 방법론과 지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독서란 무엇인가?
- ○ 평가원적 글쓰기와 두괄식 서술
- ○ 기출 분석의 방법
- ○ 미시적 구조도와 거시적 구조도
- ○ 지문 위 필기법
- ○ 이항대립이란 무엇인가
- ○ 부분과 전체
- ○ Kane's Insight

● 독서란 무엇인가?

16.06.B 개체화 현상
18.09 하이퍼리얼리즘
20.06 에피쿠로스의 자연학

● 평가원적 글쓰기와 두괄식 서술

21.06 과거제 · 영상안정화기술 · ICT 기업과 법인세
21.12 북학파
20.09 점유소유
18.06 통화정책
17.06 인공신경망
15.11.B 신체호

● 이항대립이란 무엇인가

20.11 베이즈 주의
18.06 통화정책
17.09 칼로릭의 열역학
17.11 지식의 구분
20.11 내인성레트로바이러스

● 부분과 전체

15.11.B 신체호
16.06.B 현대의 개체화 현상
20.06 개체성
13.09 단어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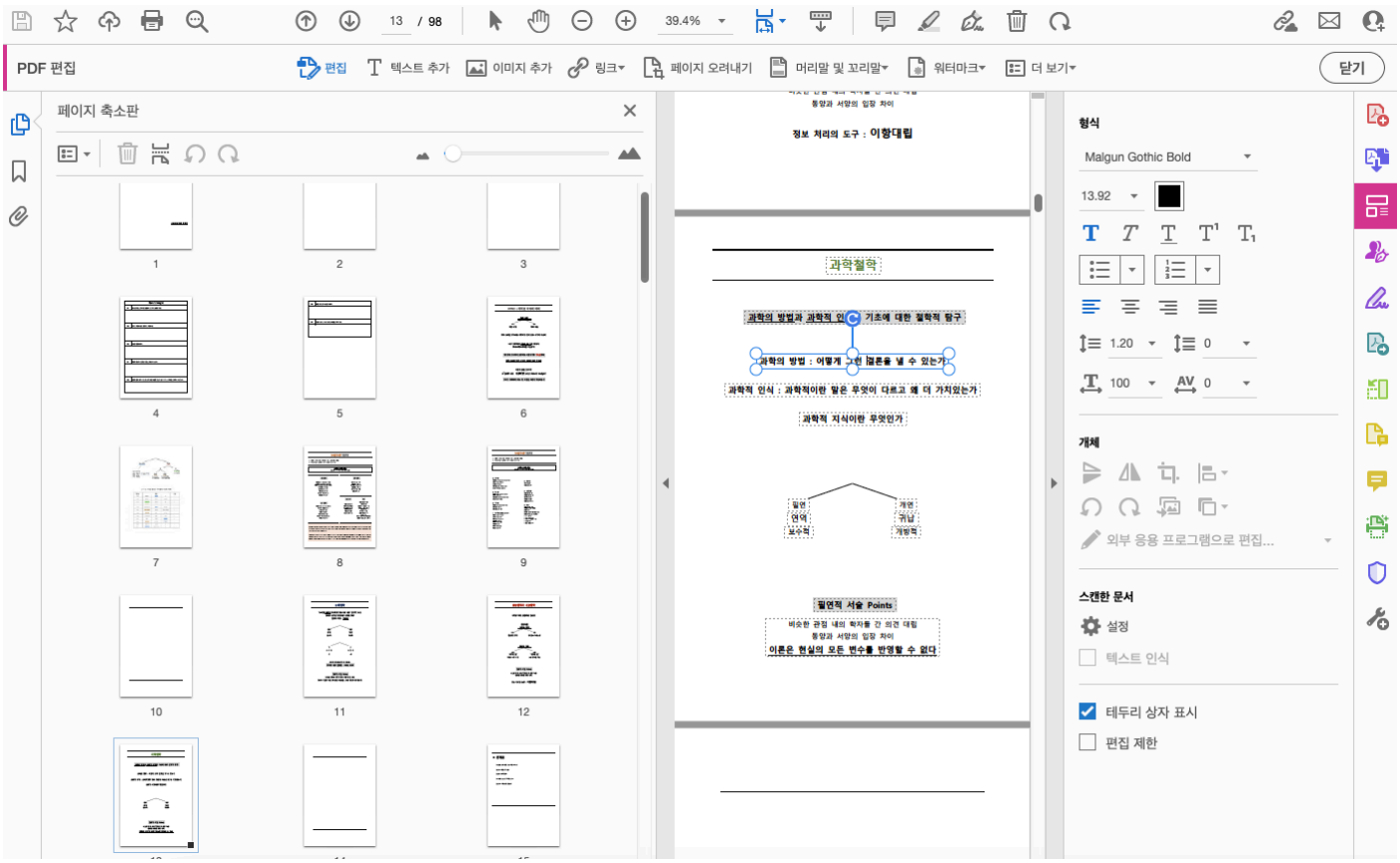
[] 수업 자료

온라인 과외는 대면보다 강의 전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온라인 과외를 하면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온라인 과외를 능숙하게 진행하는 강사는 대면과외에서 더 능숙할 것이라는 것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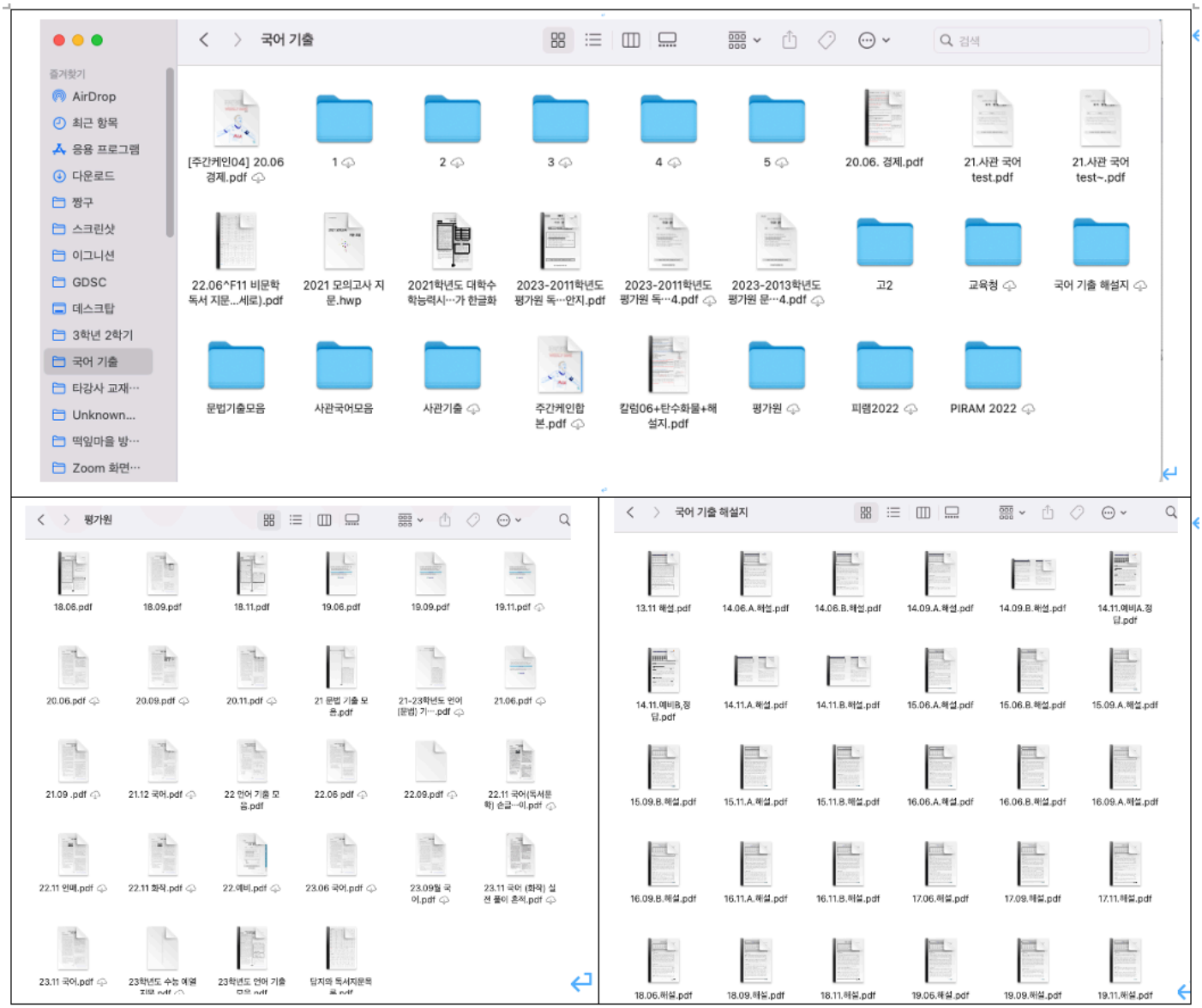
수 백 번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저지만, 저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땐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강사가 준비를 잘 하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온라인 과외는 수업 자료에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직접 기출을 선별한 뒤 파일로 엮는 게 좋습니다. 시중의 교재는 pdf를 구하기 힘드니까요. **따라서 매달 adobe pdf 편집 기능을 결제하시길 추천합니다.** 굿노트로도 pdf 편집이 가능하지만, adobe를 쓸 때보다 10배의 용량을 차지하며 작업 환경 또한 좋지 못합니다. 애초에 필기 어플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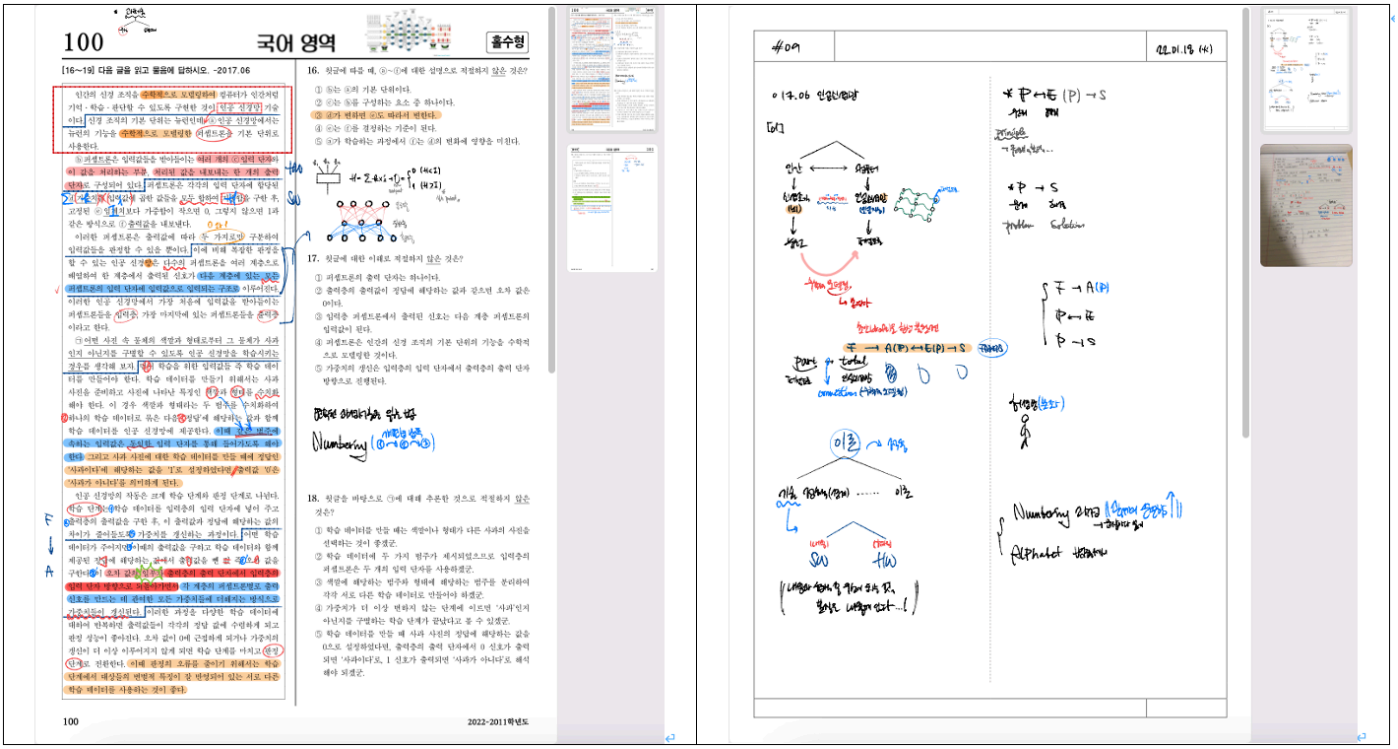
평가원 기출들은 10개년 이상 해설지까지 모두 구비해 두세요. 컴퓨터와 태블릿 모두에요. 가능하면 교육청, 리트도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ebsi 기출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또한, 예전에 고구마님이 13개년 평가원 독서 문학을 모두 총정리하여 올린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려갔을 건데 이것 덕분에 제가 할 일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수업 중에는 수업 자료로만 필기하기엔 칸이 모자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따로 필기 시트를 만들어 두 파일을 왔다 갔다 하며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 수업 자료와 교재 및 필기본 파일 예시를 글에 첨부했습니다. 좋은 참고가 될 겁니다.



이들은 수업 직후 바로 pdf로 변환하여 학생에게 카톡으로 제공하면 좋습니다. 과외에서 한 커리가 끝나면 지금까지의 수업 자료들을 모두 엮어 전자책 형식으로 다시 한 번 제공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겁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과외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세팅과 준비물, 자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략한 것이 있긴 한데도 생각보다 준비할 것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네요.
물론 이는 강사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 학생들은 별로 준비할 게 없습니다.

온라인 과외에서 강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컨텐츠입니다.
전자책 형식으로 다양한 학습자료를 구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편에서 온라인 수업 과정과 홍보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면 이 시리즈는 끝이 나겠네요!

질문 및 상담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GIST ★ HARRYKANE

직전 칼럼들
수능 과외는 어떤 사람이 해야할까?
https://orbi.kr/00043537776

케인의 과외 경험담 2
https://orbi.kr/00042575349

칼럼 모음글
케인의 2020년 칼럼 정리
https://orbi.kr/00034624645

대표 칼럼들
[칼럼01:Re] 국어 19점에서 98%까지의 여정 (3부)
https://orbi.kr/00034938352

화제, 개념을 서술하는 문장엔 잉여정보가 없다
https://orbi.kr/00033379279

수능국어해리케인

2년 연속 의대 합격생 배출

고양시 일산 거주 / 광주광역시 첨단 거주 / 광주과학기술원 재학
다수의 수능 국어 교재 검토 경력
파급효과 물리학1 검토진
유명 학원 강사 자료 조교
경력 2년차, 누적 과외생 60명 이상
국어 : ***"19점에서 높은 1등급까지"***
그읽그풀, 구조독해 그리고 독해에너지의 분배
이항대립, 부분과 전체
기출 분석 및 실전 실력 기르기
물리학 : 물리Ⅰ, Ⅱ 내신 1등급
19 수능 물리Ⅰ 50
20 평가원 모의고사 물리Ⅱ 1등급
물리 경시 및 연구 대회 등 다수의 수상 경력

< 국어공부 상담 및 일 연락 >
쪽지 / 오픈채팅 / 인스타 DM

- 광주 지역 대면, 비대면, 그룹 과외 상시 모집
- 전국 단위 비대면 과외 상시 모집

+ 그 외 일 연락은 쪽지 / 오픈채팅 / 인스타DM 부탁드립니다.

개인 블로그 주소 : https://blog.naver.com/ltittt